

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대학원연구센터 교수

“1월 7일 프랑스 풍자전문 주간지인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의해 총격 테러를 당해 1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것은 팩트다. 그리고 약 1주일이지났다. 간간히 들려오는 외신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을 전하는 국내 언론의 관련 기사들을 훑어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 중의 하나가 사건의 본질을 ‘이슬람 근본주의VS표현의 자유’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대개가 그렇다는 얘기가. 하지만 그 대개의 이야기가 이번 사건에 대한 본질을 희석한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

풍자전문 주간지인 ‘샤를리 엡도’가 표현의 자유를 대변하고 지켜온 것은 맞는지 우선 물어보자. 먼저 필자는 무슬림도 아니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은 더욱 아님을 밝혀둔다.

대부분의 언급들을 보면 ‘샤를리 엡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샤를리 엡도’는 성역 없이 여기저기 다 두들겨 패

는, 그리고 정치적 포지션으로 보자면 프랑스 내 무슬림에 대해 우호적인, 무슬림 차별을 주장하는 프랑스 내의 극우 주의와는 아예 대척점에 서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그리고 그러한 ‘샤를리 엡도’에 대한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테러 공격은 아이러니하다고 평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하게 된 ‘샤를리 엡도’의 만평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터 생긴다. 단적으로 묻고 싶다. 이슬람의 예언자가 이슬람 근본주의의 표상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가 맞을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다. 불교 근본주의자가 극단적인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고 치자. 그러면 부처님이 극단적인 테러공격을 감행한 그 근본주의자인양 풍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백 번 양보해서 그들이 속한 집단 전체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불교도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테러공격을 감행한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지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지만, ‘샤를리 엡도’가 표현의 자유를 내걸고 ‘표현의 자유’로 용인 받을 수 있는 만평을 게재한 것이라고 수긍하기에도 그리 쉽지 않다. 꼭 ‘샤

를리 엡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행되는 언론의 폭력 역시 폭력이지 마찬가지로 이기 때문이다.

‘샤를리 엡도’가 성역 없는 풍자와 비판을 내세우는 ‘특별한 언론’이라고 해서, 그들의 풍자와 비판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역 없는 풍자와 비판을 내세우는 특정한 언론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서구세계와 대립하고 있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풍자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하는 게 오히려 그 ‘특별한 언론’다운 태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묻고 싶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슬람 세계만의 산물인가? 아니면 이슬람 근본주의의 출현과 성장과 지속에 서구세계가 구조적인 반조를 행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감안되었던 것인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만 그들의 풍자만평에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테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이슬람 역시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계율 제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막연히 포괄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

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中道)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중도의 가르침은 극단 사이의 막연한 중간 지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극단을 벗어난 올바른 길을 요구한다. 극단을 벗어난 올바른 길을 주장하고 요청해야 할 때, 만약 한 가지 행위도 그 사람의 면모 전체를 비난한다면, 그 올바른 길이 올바르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요구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성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만, 그래야만 그것은 화해와 공존으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

서구 세계에서 서구 세계 바깥의 이슬람은 어떻게 말해도 소수이다. 그리고 언론은 다수의 권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에 의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화해는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의 소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일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조계종 혁신이 한국불교 혁신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올해 중무 운영 캐치프라이즈다. 이 같은 기조에 대한 핵심 사업으로는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경지동역사문화관광지원 조성사업 △공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선언 등을 내놨다.

100인 대중공사와 조계사 성역화 사업, 불교통일선언은 지난해부터 준비돼 오던 것으로 올해 그 빛을 보게 됐다. 100인 대중공사에 대해 자승 스님은 “비판이든 견제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을 활짝 열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계사 성역화에 대해서는 “민족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가치를 재창조해나가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불교통일선언’에 대해서는 공존과 상생, 합심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밖에도 자승 스님은 화쟁위원회와 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 갈등과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을 천명했다.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100인 대중공사이다.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경우 비판적 의견을 견지하는 세력의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토론회와 야단법석, 쇠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지만 이것이 종무행정에 도입되거나 입법화된 사안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지루하게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선학원과의 문제도 올해 조계종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소통과 화합은 모든 기관과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이다. 소통과 화합이 이뤄져야 혁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올해에는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외국인 노동자 법회 지원 절실

2014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인구는 약 170만 명에 이른다. 현재 내골,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등 15개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건축, 제조업부터 농축산업, 어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근무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아시아 불교 국가 출신이지만 이들에 대한 기초 정보는 부족했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포교원 국제전법단과 마하이주머니지원단체협의회가 ‘불교법안 이용자 대상 외국인 근로자 기초실태조사’를 발간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주민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80%가 불교도였으며, 이중 70%는 자국불교를 신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와 힌두교는 7%가량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종교생활 실태는 좋은 편이 아니다. 주1회 이상 종교생활을 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는 아예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종교

기관에 거는 기대도 ‘종교활동 활성화(45.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자국민 대인관계 활성화(13.3%), 한국어 교육(11.5%), 심터기능 활성화(8.4%)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64%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신실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주기에 적합한 맞춤형 종교활동을 고민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제도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 다문화 이주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불교의 포용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발언대

“민족 얼 상징하는 한글 ‘국보 1호’ 마땅”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



해문 스님 문화재재단장기탁기 대표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 10만 서명운동”은 부실 복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기 위해 대국민적 참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역사가 있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 새해를 맞아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이다. 이번에 모인 10만 명은 문화재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10만양병이 되어 문화재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서명운동으로 훈민정음의 가치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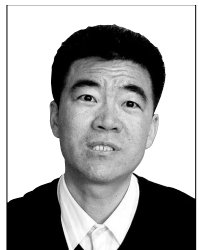
우리 문화재재단장기탁기는 서명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1월 중 ‘국보 1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15일 문화재청에 공식 접수했다. 문화재청이 국보 1호 문제가 공론화 되면 숭례문을 국보1호에서 해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보 변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국보 1호 변경은 정권마다 논의돼 왔다. 하지만 국민 혼란을 이유로 무산됐다.

광복 70년을 맞아 지금이 국보 1호를 변경할 적기인 것이다. 국보 1호는 단순한 문화재가 아닌 민족의 상징이자 얼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된 훈민정음에 대한 국민들과 불자들의 더욱 뜨거운 관심이 필요하다.

지하철 ‘풍경소리’는 달리고 싶다

철거 위기 풍경소리



정우식 전 대한불교청년회장

지하철 문화 포교를 이끌었던 ‘풍경소리’가 철거 위기에 내몰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2012년에는 서울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서울지하철 불평사항 개선사업’ 일환으로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던 2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해 12월 26일 풍경소리에 공문을 발송해 철도 역사 내 풍경소리 게시판 무상 승인기간이 종료됐다고 고지한 후 1월 7일까지 광고계약 체결 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철거하겠다고 한다. 게시판당 광고비로 1만 6천원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언론 기사를 보니 광고비가 부과될 경우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영세한 불교 포교단체는 사실상 그만두라는 이야기다.

풍경소리의 게시판은 단순 포교도구가 아닌 1999년부터 10여 년을 식탁한 지하철을 일상의 감동과 지혜 담은 글과 그림으로 장식해 온 감성 문화콘텐츠였다. 이미 전국의 지하철역과 철도역 등에 2천 6백여 개의 풍경소리 게시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풍경소리의 그림들 역시 기성 판화 작가들의 활동의 장으로도 활용돼왔다.

이 같은 공공성이 다분한 문화사업을 코레일은 돈으로 본 것이다. 지하철과 철도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것이다.

불교의 ‘풍경소리’와 기독교의 ‘사랑의편지’는 성령의 말씀들을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전해왔다. 공공성에 부합되는 사업일뿐 아니라 더욱 장려돼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공익사업을 자바로 환산한 코레일의 처신에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코레일이 공공성을 제1의 가치로 여긴다면 잘못된 판단을 거두고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과 시정을 요구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서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 교육대상 : 모든 종단의 비구, 비구니 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강사진 : 학회장 스님과 학회 소속 지도교수 특강강사
- 교육과정 : •전 문 과 정 2년
•연 구 과 정 4년
•교수사과정 7년
- 개강 : 2015년 3월 7일 개강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 등록금 : 년 100만원

입학문의 :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 02)414-1222